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고찰*

하경지(한국외대)

1. 들어가는 말

다윗은 세 번째 기름부음을 통해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삼하 5:3; 대상 11:3) 혁혁한 공을 세워 나갔다. 먼저 그는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다윗 성을 세웠다(삼하 5:6-12).¹ 수도의 형성은 이전과

* 이 논문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구약 난해 본문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주제로 2022년 6월 27일에 개최된 ‘키(key) 세미나’에서 발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1 여부스 족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 이래로 오랫동안 큰 숙제로 남아 있었기에(수 15:63; 사 1:21; 3:5) 큰 의의가 있는 업적이었다. 먼저 이 도시는 여러 고대 문서(주전 2500년경의 엘바 문서, 주전 19세기의 이집트 주술문서, 주전 14세기의 아마르나 서신)에 등장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였다. 또한 예루살렘은 북쪽 지파들과 남쪽 지파들을 포용하기에 지경학적으로도 좋은 위치였다. 지리적으로 볼 때도 높고 고립된 지대여서 방어에도 유리했다.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어느 지파도 정복되지 않은 곳이었기에 수도로 삼는다고 해서 불만을 품을 지파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윗이 이곳을 ‘전쟁을 통해’ 그리고 ‘온전히’ 정복했는지는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여부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삼하 24:18, 21-24). A. A. 앤더슨, 「사무엘하」 (권대영 옮김)

다르게 제대로 된 이스라엘의 정부의 출범과도 같다. 또한 그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 사무엘 때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사울 시대에도 여전히 기랴트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으로써 다윗은 자신의 정치에 종교적 명분까지 갖추게 되었다(삼하 6장). 더 나아가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영구히 안착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삼하 7:2). 하지만 이번 계획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긍정 선지자 나단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삼하 7:2-3; 대상 17:1-2)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많은 부분에서 성공을 이루었던 다윗이 성전 건축 계획에 있어서는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것은 성경의 독자들을 의아하게 한다.

구약성경은 이에 대해 여러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준다(삼하 7:14; 왕하 5:3; 8:18; 대상 17:4-15; 22:8; 28:3; 대하 6:7-9; 8:8-9).

본문	본문의상황	근 거
삼하 7:1-17	나단 신탁	다윗의 아들이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지을 것임
왕상 5:3	솔로몬이 후람에게	아버지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느라 건축 못함
왕상 8:18-19	솔로몬의 봉헌 연설	자신(솔로몬)이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
대상 17:4-15	나단 신탁	다윗의 아들이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지을 것임
대상 22:8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신(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 건축 못함
대상 28:3	다윗이 백성들에게	자신(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 건축 못함
대하 6:7-9	솔로몬의 회상	다윗의 마음은 좋으나, 그의 아들이 건축할 것임
대하 8:8-9	솔로몬의 봉헌 연설	자신(솔로몬)이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

위 본문들 중에서 성경의 독자들을 가장 어리둥절 하게 만드는 구절은 아

김, (WBC 11; 서울: 솔로몬, 2001), 168-78. 원제는 A. A. Anderson, *2 Samuel* (WBC 11; Dallas, TX: Word Books, 1989).

마도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자여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역대기의 표현일 것이다(대상 22:8; 28:3).² 구약 전체에서 역대기에만 단 두 번 등장하는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 왔다. 예를 들어, 브라운(R. Braun)은 성전 건축이 다윗에게 금지(forbid)되었다고 본다.³ 윌리엄슨(H. Williamson)은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 제의적으로 부정해졌다고 본다.⁴ 덕슨(P. Dirksen)은 다윗이 도덕적인 죄(moral guilt)를 지은 것으로 해석한다.⁵ 윌콕(M. Wilcock)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not qualified) 평가한다.⁶ 야벳(S. Japhet)은 다윗의 ‘역설적이고도 비극적인 결점으로 인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다는 다소 모호한 해석을 제시한다.⁷ 하지만 이러한 입장들은 본문 자체의 메시지라기 보다는 “피를 흘리다”라는 구절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간주하는 해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역대기 저자의 표현이 ‘과연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를 역대기 해당 구절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의 맥락속에서 고찰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구약에서 ‘피를 흘리다’라는 표현이 과연 전쟁의 문맥에서 사용된 예가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둘째,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흘린 행위를 구약 전체에

2 두 본문간의 차이는 역대상 22:8은 다윗이 자신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것을 솔로몬이 완성할 사명이 있음을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장면이고(대상 22:2-29), 역대상 28:3은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위해 성전을 건축해야 함을 공개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이다(대상 28:1-21).

3 Roddy Braun, *1 Chronicles* (WBC 14; Waco, TX: Word Books, 1986), 226.

4 H. G. M. Williamson, *1 & 2 Chronicles* (Eugene, OR: Wipf & Stock, 2010), 154

5 Piet B. Dirksen, "Why Was David Disqualified as Temple Builder? The Meaning of 1 Chronicles 22,8", *JSOT* 70 (1996), 53.

6 Michael Wilcock, *The Message of Chronicles: One Church, One Faith, One Lord*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1987), 99-100.

7 Sara Japhet, *1 & 2 Chronicles*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395-98.

호르는 성전 사상(聖戰, Holy War)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⁸ 셋째,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이루지 못한 이유를 신명기적 관점과 역대기적 관점이 말하는 바를 각각의 저작의도와 해당 본문의 문맥을 바탕으로 논의한 후, 두 관점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로 마무리할 것이다.

2. ‘피를 흘리다’ 관련 본문들

역대상의 두 본문(22:8; 28:3)에서는 다윗이 많은 전쟁(מִלְחָמָה/밀하마)을 치르며 많은 사람들의 피(דָּם/담)를 흘렸다(שָׁפַךְ/샤파크)는 사실이 학자들이 그의 성전계획 실패에 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주요인인 것으로 보인다.⁹

대상 22:8	<p style="text-align: center;">וַיְהִי עָלַי דְּבַר-יְהוָה לֵאמֹר <u>דָּם לְרַב שָׁפַכְתָּ וּמִלְחָמוֹת גְּדוֹלוֹת עָשִׂיתָ</u> לֹא-תִבְנֶה בַּיִת לַשָּׁמַי כִּי דָמִים רַבִּים שָׁפַכְתָּ אַרְצָה לְפָנַי</p>
대상 28:3	<p style="text-align: center;">וַהֲאֱלֹהִים אָמַר לִי לֹא-תִבְנֶה בַּיִת לַשָּׁמַי <u>כִּי אִישׁ מִלְחָמוֹת אָתָּה וְדָמִים שָׁפַכְתָּ</u></p>

8 구약의 전쟁을 기록한 전쟁으로 본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Patrick D. Miller Jr, *The Divine Warrior in Israel*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Tremper Longman and Daniel G. Reid, *God Is a Warrior*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10). 또한 국내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이곤, “기록한 전쟁이념이 구약사상에 끼친 영향” 『한신논문집』 70 (1990), 5-24. 이러한 연구들이 구체적으로 역대기 본문을 다루지는 않지만, 다윗의 정복 전쟁들 또한 성전(Holy War)이었기에 연관 지어 살펴볼 것이다.

9 예를 들어, Gary N. Knoppers, *I Chronicl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C: New York: Doubleday, 2004), 772.

여기서 필자는 다윗이 ‘피를 흘린 것’과 그가 ‘많은 전쟁을 치른 것(22:8; 또는 ‘전쟁의 사람’인 점, 28:3)’ 사이의 접속사(γ/με/그리고)가 해설적인(explanative)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다. 즉, 두 가지 행동은 서로 다른 것이라기 보다는 동일한 것(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행위)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전쟁의 상황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구약 본문에서 이러한 예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약에서 ‘피를 흘리다’는 표현이 살인과 관련된 본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⁰

	본문	문맥	내용
1	창 9:6	노아 언약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2	창 37:22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
3	민 35:33	도피성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
4	신 19:10	도피성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
5	신 21:7	살인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6	삼상 25:31	아버기일이 다윗에게 (나발에 관하여)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 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7	왕상 2:31	솔로몬의 숙청	왕이 이르되...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8	왕상 18:28	바알 선지자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10 단, 사람이 죽는 경우 외에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경우나 여성의 생리와 관련된 경우와 같은 본문들은 제외했다.

9	왕하 21:16	므낫세	므낫세가 ...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10	왕하 24:4	여호야긴	또 그여호야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
11	사 59:7	백성들의 죄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
12	렘 7:6	백성들의 죄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 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
13	렘 22:3	유다 왕의 집	...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확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14	렘 22:17	여호야김	그러나 네[여호야김]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15	겔 16:38	예루살렘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죄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16	겔 18:10	만약의 상황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17	겔 22:3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18	겔 22:4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
19	겔 22:6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에 있었도다 6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네'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킴
20	겔 22:9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
21	겔 22:12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
22	겔 22:27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23	겔 23:45	오홀라와 오홀리바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24	겔 24:7	녹슨 가마 (예루살렘)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음이여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25	겔 33:25	예루살렘의 죄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까보나
26	겔 36:18	예루살렘의 죄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27	욘 3:19	애굽과 에돔의 횡포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라
28	시 79:3	아삽의 시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 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29	시 79:10	하나님의 대적 나라들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 주소서
30	시 106:38	예루살렘에 흐른 피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 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31	잠 1:16	악한 자의 모습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나라
32	잠 6:17	악한 자의 모습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33	애 4:13	선지자 및 제사장의 죄악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위의 본문들을 살펴보면 피를 흘리는 것에 관한 본문은 주로 개인간의 폭력이나 왕의 폭정 및 이스라엘의 불의를 지적하는 문맥속에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오경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민 35:33; 신 19:10). 하지만 역사서는 왕정 시대에 므낫세(왕하 21:16)와 여호야긴(왕하 24:4)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땅을 더럽혔음을 고발하며, 시가서와 선지서 또한

이스라엘 전체가 이러한 일에 심각하게 연루되었음을 폭로한다. 이와 같이 피 흘림과 관련된 본문들은 모두 폭력이 연루된 살인과 같은 범죄의 상황이며, 다윗의 경우처럼 전쟁의 상황속에서 다루어지는 경우는 등장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다윗이 전쟁 외의 상황에서 피를 흘린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흥미롭게도 사무엘서의 다윗 내러티브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원수의 피에 대해 결백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의 죽음 및 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삼하 4:9-12)¹¹ 요압이 사울 집안의 아브넬을 죽였을 때도 다윗은 이에 대해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함을 밝힌다(삼하 3:28).¹²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린 유일한 경우는 우리아 사건을 들 수 있다. 중세 랍비 김히(D. Kimchi)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를 그가 우리아를 죽게 한 것과 연관 짓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것에 대해 기록한 역대기 저자는 정작 밋세바 사건을 언급조차 하지 않기에 지지하기 어려운 해석이다.¹³ 켈리(B. Kelly)는 다윗의 성전 계획이 실패한 것이 바로 앞 장(대상 21장)에 기록된 인구조사를 통해 수많은 백성들을 죽게 한 것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전쟁의 상황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었기에 전쟁과 피를 관련시킨 역대기 본문에 대한 적절

11 이는 또한 다윗이 사울 가문의 왕위를 찬탈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변호적인 목적으로 기록된 듯하다.

12 뒷부분(4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다윗의 실수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다윗이 무죄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13 Brian E. Kelly, "David's Disqualification in 1 Chronicles 22:8: A Response to Piet B. Dirksen," *JOT* 80 (1998), 58. 다윗은 우리아를 살인한 것으로 인해 엄청난 핏 값을 치렀다. 밋세바와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었고(12:14, 18), 자신의 집안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탁을 듣게 되었다(12:10-12). 암살품이 반역할 때에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암살품의 편에 서게 되는데 그는 바로 밋세바의 할아버지인 우리아의 장인이다. 다윗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도 나중에는 아도니아를 지지함으로써 다윗을 배반하게 된다. 그야말로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했던 말,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25절)처럼 자신이 휘두른 칼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됨을 보게 된다.

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¹⁴ 따라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림으로 인해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을 전쟁 외의 상황과 연관 짓기 보다는 전쟁의 상황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구약에서 근거를 찾기 어렵다.¹⁵ 만약 그가 전쟁의 상황에서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을 죽이거나 사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경우였을 것이다. 혹여라도 다윗의 부정이 전쟁 중에 사체로 인해 비롯된 것이었다면, 전쟁에서 복귀 후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진영 밖에서 칠일간 머물렀다가 일곱째날에 옷을 세탁하는 의식(a purification ritual)을 통해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었다(민 31:19-24). 따라서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 성전 건축의 자격을 상실한 정도로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논리는 빈약해 보인다.

만약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형상인(창 9:6) 사람들을 죽였다고 정죄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빈약하다. 왜냐하면 같은 원리가 구약의 다른 대표적인 인물들(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사사 및 왕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렇다면 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 실패와 관련하여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을 죽인 것을 지적한 임태수의 해석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¹⁶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심지어 성전 건축의 당사자였던 솔로몬도 예외일 수는 없게 된다. 그 또한 여러 사람들의 피를 무자비하게 흘렸다. 먼저 그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 아도니아(왕상 2:23-25)와 요압을 죽게 했으며(왕상 2:29-34), 시므이도 죽음에 이르게 했다(왕상 2:44-46). 솔로몬의

14 Kelly, 윗글, 58-59.

15 다윗의 제의적 부정에 관한 견해는 다음을 참고하라. Williamson, 윗글, 154.

16 임태수, 「역대상」(기독교장립100주년기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365.

피흘림이 정당했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예루살렘 땅을 피로 물들였다는 점에 대해서 그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 구약의 성전(聖戰, Holy War) 사상

구약에 등장하는 전쟁은 대부분 성전(聖戰, Holy War)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노퍼(Knopper)는 자기 방어나 사법 집행과 같은 경우에는 피 흘림이 정죄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며 다윗의 경우도 전쟁의 상황이었기에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¹⁷ 하지만 필자는 전쟁이 구약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인만큼 예외적인 상황 중 하나로 간주하기 보다는 구약 전체에 흐르는 성전 사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본다. 물론 구약의 모든 전쟁이 예외 없이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¹⁸ 대부분의 전쟁에 공통적으로 성전 사상이 흐르고 있음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알 수 있다.

먼저, 이스라엘의 전쟁을 주도한 장본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었다.¹⁹ 구약의 여러 본문들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시작되었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싸웠다. 예를 들어, 아모리 전투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다(신 2:24). 모세 또한 길르앗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싸우라고 했다(민 32:29).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7 Knoppers, 윗글, 774.

18 예를 들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대항하여 벌인 전쟁(삿 9장), 그리고 아합의 전투처럼(왕하 9장) 여호와와의 허락 없이 시작하거나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출전하는 전쟁이 이에 해당한다.

19 Longman and Reid, 윗글, 40.

나타나셔서 여리고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구체적인 전략까지 상세히 알려주셨으며(수 6:2-5), 이스라엘은 가나안 백성들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였다(6:21).²⁰ 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인물들 중 누구도 전쟁에 참전하여 피를 흘린 것에 대해 정죄되지 않았다. 특히 역대기에서도 남 유다의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묘사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했던 것이다(삼하 8:6, 14; 23:10; 대상 18:6, 13).²¹

뿐만 아니라, 구약은 이스라엘의 전투 가운데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을 수행하고 계심을 누누이 강조한다.²² 아래의 정리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무찌르시며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심이 구약의 도처에 두루 묘사되어 있다.

본문	상황(문맥)	내 용
출 14:14-25	애굽과의 전쟁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삿 4:14	드보라의 전투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삼하 5:24	다윗의 블레셋 전투	뿡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 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20 여호수아의 헤렘에 관한 현대적 해석은 다음을 참조하라: 방기민, “회복의 읽기를 통한 여호수아 헤렘 본문의 윤리적 해석,” 「구약논단」 79 (2021), 72-76; 김동혁,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구약논단」 81 (2021), 131-154.

21 Sara Japhet, *읽글*, 397-398.

22 여호와께서 친히 앞서 가심은 법레(언약계)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는 것으로 가시화되었다. Patrick D. Miller Jr, *The Divine Warrior in Israel*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145-158.

렘 50:34	바벨론을 향한 말씀	그들(남 유대)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만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	------------	--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투가 종종 하나님께 드러지는 예배로 묘사되기도 한다.²³ 앞서 언급한 여리고 전투를 보면, 예배의 모습이 역력히 보인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전투태세를 갖추게 하는 대신 “스스로 성결케 하라”(수 3:5)고 명령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고(수 6:16, 20) 백성들은 일제히 합성을 질렀다. 여기서 사용된 ‘합성을 지르다’의 히브리어 단어(טִּירַח/루아/합성)는 전쟁의 상황(삿 7:21; 삼상 17:52; 사 42:13; 대하 13:15) 뿐만 아니라 찬양의 어휘로도 사용되었다(“기쁘게 외치다,” 스 3:11, 13; 시 95:1-2; 98:6; 100:1). 아마도 저자가 이 전쟁이 하나님께 드러지는 예배임을 묘사하기 위해 중의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다.²⁴ 초대 왕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 나아갈 때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로 인해 사무엘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 장면에서 알 수 있듯, 전쟁에 앞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삼상 13장). 다윗은 블레셋 전투에 앞서 하나님께 여주었다(대상 14:10). 암몬과의 전투 중 우리아는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잘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아마도 성적인 접촉은 두 사람을 부정하게 하므로 일정한 의식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레 15:16-18).²⁵ 분열왕국 시기에 있었던 여호사밧의 전투에서도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며 전쟁터로 나아갔다가, 대승리를 거두고 나서는 다시 찬양을 부르며 되돌아온 모습 또한 예배의 모습으로 비쳐진다(대하 20:21-27).²⁶

23 Longman and Reid, *읽기*, 41.

24 송병현, 「여호수아」(서울: 이엠, 2018), 159-161.

25 Longman and Reid, *읽기*, 43.

이러한 성전(Holy War) 사상은 고대 근동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했다. 전쟁은 신의 뜻에 따라 진행이 되고, 신의 허락 하에, 신의 이름으로 원수의 신에 대응하여 싸우는 것이었다.²⁷ 따라서 성전에서의 승리는 왕의 승리가 아니라 신의 승리였고, 이로 인해 전쟁의 전리품은 신에게 속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⁸ 하맛의 왕 자쿠르의 비문에 의하면, 아람을 중심으로 한 17개의 동맹군이 공격해왔을 때 바알-샤마인에게 기도했더니 그 신이 구원했다고 한다(KAI 202:5-14).²⁹ 이러한 성전 사상이 팽배했던 고대 근동 세계에서 왕이 정당한 전쟁을 치렀다는 점과 또 이러한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이유가 없다.³⁰ 왜냐하면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예를 들어, 아비아, 아사, 요아스)의 전쟁을 다룰 때도 그들의 피 흘림에 관해서 비난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대 왕의 주 임무는 전쟁에 나가 승리함으로써 백성들이 안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으며, 이스라엘도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왕정을 도입했던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삼상 8:19-20). 사울 왕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는 별도로 그가 전쟁에서 보여준 승리는 높이 평가된다(삼상 11:15). 따라서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왕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다는 증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

26 여러고 전투와 기드온 전투에서는 합성(명사형 'הַחֲרִיקָה' /테루아/합성)만으로 적진을 무너뜨린 반면, 역대기 본문에서는 전쟁의 합성(테루아)이 레위인들의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대하 20:6-22).

27 김영진, *윗글* (2005), 50.

28 이러한 관점은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전쟁 이데올로기에서도 잘 나타난다. 열왕기하 18장 25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앗수르의 랍사게가 전한 앗수르 왕의 말("내가 어찌 여호와와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느냐")은 스스로를 신의 대리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김영진,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전쟁원인,"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6 (2002), 84.

29 김영진, *윗글* (2005), 123.

30 황성일, "역대기와 성전건축가 솔로몬," *광신논단* 18 (2009), 43.

4. 신명기적 관점에서 보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

신명기적 관점에 입각한 사무엘서-열왕기서는 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었는지의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했다.³¹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바벨론에 끌려간 여호야긴의 모습으로 끝을 맺는 열왕기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따라서 사무엘과 사울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범적인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도 과감하게 소개한다.

	긍정적	부정적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엘리와 대조)	자식들이 불량함(엘리의 경우와 같음)
사울	큰 키와 준수한 외모, 군사적 역량(암몬, 블레셋, 아말렉)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삼상 15:23)
다윗	하나님 중심(벧케 이둥) 군사적으로 뛰어난(정복 전쟁)	간음(밧세바), 살인(우리아), 가정 불화(미갈, 압논과 다발, 압살롬), 인구조사
솔로몬	지혜(분별력), 건축사업, 외교	국제결혼, ³² 혼합종교 허용, 우상숭배 참여

이러한 신명기 역사에 다윗의 간음, 살인, 가정 불화, 인구조사와 같은 부정적인 면들이 연달아 언급되었지만, 그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못

31 노트(M. Noth)는 신명기적 관점을 부정적, 회의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이은우는 노트가 다양한 신학을 간파하는 한계를 지녔다고 지적하며 신명기의 관점이 이스라엘을 회개로 이끌어 궁극적으로는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역설적 희망의 메시지가기도 하다고 주장한다(이은우,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29 [2008], 68)

32 같은 사건을 놓고도 열왕기는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반면, 역대기는 솔로몬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다. 예를 들어, 열왕기는 솔로몬이 수많은 외국 공주들과 정략결혼을 했고, 이 아내들로 인해 타락했음을 말한다(왕상 11장).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과는 다르게 솔로몬의 지위가 애굽의 바로(아마도 21왕조의 시아문이 유력한 후보)가 딸을 내줄 정도로 국제적으로 막강한 지위였다는 사실과 솔로몬이 종교적인 이유로 그녀를 여호와와의 계가 있는 거룩한 다윗 성에 살지 못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대하 8:11).

하게 되었다는 언급이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명기적 관점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차원이 아닌 다음과 같은 점들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1)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실 것임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삼하 7:4-17), 다윗의 결함이 아니라 그를 향한 여호와의 계획 선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집(בַּיִת/바이트)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서’ (주어) 그를 위해 영원한 집(바이트)을 세우실 것임을 계시하셨다.

삼하 7:11하	וְהָגִיד לְךָ יְהוָה כִּי-בַיִת יַעֲשֶׂה-לְךָ יְהוָה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삼하 7:12	כִּי יִמְלֹאוּ יָמֶיךָ וְשָׁכַבְתָּ אֶת-אַבְתָּיִךְ וְהִקְיַמְתִּי אֶת-זֶרְעֶךָ אַחֲרָיִךְ אֲשֶׁר יֵצֵא מִמֶּעֶיךָ וְהִכִּינְתִּי אֶת-מְמַלְכָתוֹ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삼하 7:13	הוּא יְבַנֶּה-בַּיִת לְשִׁמִּי וְכִנְנֹתִי אֶת-כִּסֵּא מְמַלְכָתוֹ עַד-עוֹלָם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1절(하)의 히브리어 구문을 보면, 강조를 위해 목적어 ‘בַּיִת’ (바이트/집)가 종속절의 가장 앞에 위치되어 있다. 이 단어는 또한 13절에서도 반복이 됨으로써 나단 신탁의 핵심 단어임을 강조한다. 다윗은 이미 왕궁을 짓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삼하 7:2), 이 문맥에서 ‘바이트’는 단순히 건물이나 다윗의 가문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개역개정이 ‘왕위’라고 번역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나단 신탁의 핵심은 다윗의 자격 여부를 떠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지속되게 하실 것이라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가문을 위한 영원한 계획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상은 고대 근동에서 확연하게 차별화된 사상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왕은 도시를 정복하고 난 뒤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해 신전(Temple)을 건축하거나 이미 신전이 있는 경우에는 전쟁을 통해 획득한 전리품을 신전에 바치는 것이 보통의 관례였다.³³ 예를 들어, 메사 석비(또는 모압 석비)에 의하면 모압 왕 메시는 건축 활동을 했고 자신이 섬기는 그 모스를 위해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신전에 바치는 장면이 등장한다³⁴ 느부갓네살(2세)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전에 두었다(스 1:7; 5:14). 이러한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신전은 신들의 거주지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대 근동의 한 왕이었던 다윗도 자신이 섬기는 신(여호와)을 위한 집을 건축하길 간절히 원했을 것이다.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신전이 필수적이었던 더 궁극적인 이유는 신은 인간이 건축해준 신전에 거주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신들은 그곳에서 쉬고 그곳에서 통치했다.³⁵ 따라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유능한 왕은 군사적, 정치적 업적을 세우기 보다 신을 위한 종교적 업적을 쌓는 것이 더 중요했다.³⁶ 신전은 우주 질서의 중심 역할을 했으며, 신과 인간의 상호관계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³⁷ 비블로스의 왕 아히밀크는 파괴되었던 신전을 다시 세움으로

33 Longman and Reid, *위클리*, 83-87. 고대 근동의 왕들도 전쟁에서의 승리 후 신을 위한 건축물을 지었다. 이는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도 반복되는 주제이다. 예를 들어, 바알 신화와 에누마 엘리쉬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한 후 편히 쉴 수 있는 신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고대 근동에서 성공적인 지도자는 또한 위대한 건축가로 여겨졌다. 마르크 반 드 미어로프, 「고대 근동 역사」, 350-352. 원제는 Marc van de Mieroop, *A Hi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Malden: Blackwell, 2004).

34 황성일, “모압 비문과 아합(오므리) 왕조,” 『광신논단』 20 (2011), 31-51.

35 존 윌트, “성전,” 조나단 그리어 외 편집, 『고대 근동 문화와 구약의 배경: 구약의 숨겨진 이야기』 (김은호/우택주 옮김), (서울: CLC, 2020), 578. 원제는 Greer, Jonathan S., John W. Hilber, and John H. Walton, *Behind the Scenes of the Old Testament: Cultural,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8).

36 구약성경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왕들의 전술적, 정치적 업적보다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땀는지,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는지 아닌지에 더욱 큰 관심을 갖는다.

씨 비블로스의 거룩한 신들 앞에서 정의롭고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³⁸ 이렇게 왕은 신을 섬기고 그 대가로 신들이 백성에게 안녕, 평화,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였다. 신과 인간의 공생 관계에 있어서 초점은 신전이였다. 신전 안에 형상으로 표현된 신은 그곳에 거주하며 통치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³⁹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공생 관계가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향한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셨다. 이와 같이 신명기적 관점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는 여호와를 위한 다윗의 건축 자체보다는 다윗 왕조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즉, 여호와를 위한 다윗의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아닌 다윗을 위한 여호와의 ‘다윗 가문 세우기 프로젝트’가 중점인 것이다.⁴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결합 여부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윗의 공로나 자격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발적인 계획과 섭리였음을 다윗 언약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2) 다윗 시대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

솔로몬은 후람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수많은 전쟁으로 인

37 윌튼, 윗글 (2020), 579.

38 김영진, 윗글 (2005), 70.

39 존 H 윌튼 & J. 하비 윌튼, 「토라의 잃어버린 세계」 (안영미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105. 원제는 John H. Walton & J. Harvey Walton, *The Lost World of the Torah: Law as Covenant and Wisdom in Ancient Context*.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19).

40 이 약속은 신실하지 못한 다윗 가문의 역사가운데서도 일관되게 지켜졌다. 심지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상황이 왔음에도,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주시고 다윗에게 영원히 한 등불이 있게 하심으로서(왕하 11:32-36) 다윗 언약을 지키셨다. 또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이 죄를 범함으로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왕상 15:4). 더 나아가 히스기야 때 앗수르 왕 산헤립의 공격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그 성을 구원했으(왕하 19:34), 실제로 왕조가 수시로 바뀐 북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 유다는 끝까지 다윗 가문에 의해 다스려졌다.

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고 밝힌다. 다윗이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time-consuming occupation with warfare) 일생을 보냈으며, 다윗의 때는 아직 수행해야 할 전쟁이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는 변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⁴¹

왕상 5:3 (MT 17)	אֲתָה יָדַעְתָּ אֲתֵּיְדוּד אָבִי כִּי לֹא יָכֹל לְבַנוֹת בַּיִת לַשֵּׁם יְהוָה אֱלֹהֵינוּ מִפְּנֵי הַמְּלָחְמָה אֲשֶׁר סָבְבוּ עַד תַּחֲיֵיהוּהָ אֲחֵם תַּחַת כְּפֹת רִגְלֵי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망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	---	--

이 본문에서 열왕기 저자는 사무엘서의 본문을 재해석하고 있다. 그는 솔로몬의 입을 빌려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이며,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전하고 있다. 앞서 사무엘서의 다윗 언약 장면에서도 성전사상에 입각하여 이스라엘의 적들을 죽인 주체는 바로 여호와이심을 강조하고 있다(삼하 7:9상).

정리하면, 사무엘서-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이 끊임없는 전쟁의 시대를 살았으며, 그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 여호와와 능력과 구원을 보여준 충성된 자였다고 평가한다(삼하 3:18). 신명기적 관점이 다윗에 대해 부정적인 면도 서슴없이 밝힌다는 점에서 만약 그가 전쟁에서 피를 흘린 것이 그가 성전을 짓기에 중대한 결격 사유였다면 역대기보다는 사무엘서-열왕기서에서 부정적으로 다루어 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사무엘서-열왕기서에는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2장)에서 이미 밝

41 Donald F. Murray, "Under YHWH's Veto: David as Shedder of Blood in Chronicles", *Biblical Studies on the Web* 82 (2001), 460.

했듯, 다윗이 자신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울 가문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는 점을 거듭하여 언급되었다.

5. 역대기적 관점에서 보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 유수 이전의 역사자료를 인용하며 자신의 관점에 따라 역사를 저술했다.⁴² 특히 역대기 저자는 다윗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제 의에 큰 관심을 보이는데, 이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품었을 듯한 질문(다윗 언약은 여전히 그들에게도 유효한지) 및 포로 귀환 공동체의 시대적 사명(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중심 신앙의 재건)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⁴³ 그러다 보니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자신의 저술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 우리아와 무죄한 병사들을 전장에서 죽게 한 일, 자신의 딸 다말을 범한 암논의 범죄를 묵인한 일, 이로 인해 친아들 압살롬과 전쟁한 일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역사 왜곡이 아니라 자신의 저술목적과 의도에 따른 취사선택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역대기 저자는 필요하다면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자신

42 황성일, 「역대기와 성전건축가 솔로몬」, 『광신논단』 18 (2009), 34. 역대기가 언급하는 출처는 32개가량 된다. 예를 들어, 공식적 기록(다윗 왕의 역대지략,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 이스라엘 왕조실록,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 열왕기 주석 등), 계보 기록(시므온 자손의 계보, 갓 자손의 계보, 베냐민 자손의 계보, 아셀 자손의 계보, 르호보암의 계보 등), 선지자들의 기록(선지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선지자 갓의 글,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 선지자 잇도의 묵시 등)이 있다. 송병현, 「역대상」 (서울: 이영, 2020), 49-50.

43 김영진, 「구약성서의 세계」 (서울: 하늘기획, 2009), 639. 역대기 저자는 총 65장 중 다윗(대상 11-29)과 솔로몬(대하 1-9)에게 총 28장을 할애하는데 이는 역대기가 다루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43퍼센트를 차지하는 분량이다. 뿐만 아니라, 분열왕국 시기엔 남 유다(다윗 가문)만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다윗이 첫번째 범계 이동에서 실패한 일에서 저자는 이 실패가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데서 야기되었다는 점과⁴⁴ 이미 한번 뼈아픈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⁴⁵ 또한, 역대기에는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도 기록되었다. 사무엘서에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다윗 내러티브의 끝부분에 나오지만, 역대기에서는 인구조사가 상당히 일찍 등장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아마도 역대기 저자는 자신의 저술 목적과 의도에 따라 사건의 순서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구조사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 보다는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장소가 앞으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에 합당한 곳임을 강조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역대기 저자는 자신의 저술 목적에 부합하다면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도 서슴없이 언급한다. 그렇다면 역대기 저자가 다윗이 전쟁을 치르며 피를 많이 흘린 것을 두 번이나 언급한 것은 어떠한 의도 때문이었는지 역대기 문맥을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성전 건축이 다윗과 긴밀하게 연결됨

역대기 저자는 성전 건축을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과도 연결시키려고 한다.⁴⁶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두 인물이 연결되는 중요한 주제는 성전 건축이다. 역대기에 의하면 두 인물은 성전 건축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44 바로 앞장에서 저자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내용과 연결하여 역대기 저자는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45 동시에 역대기 저자는 레위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곳을 포함한 역대기 전체에서 강조한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체는 종교 지도자들(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 이는 포로 귀환 공동체는 왕정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46 장일선, “역대기 사가의 신학적 관점,” 『신학사상』 25 (1979), 31; 역대기 저자는 여러 면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병행시켜 다룬다. 예를 들면, 대상 22:12; 29:12(다윗의 기도)과 대하 1:10(솔로몬의 기도); 대상 22:3-4(다윗의 건축 준비)과 대하 2:1-2(솔로몬의 건축).

보인다. 다윗의 군사적 업적의 대부분은 성전 건축을 위해 전리품을 모으는 것이었고, 솔로몬은 다윗에 의해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한다. 다윗의 전쟁을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앞에서 고찰한 성전 사상(Holy War) 뿐만 아니라, 만약 다윗의 정복활동이 없었다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의 정복 활동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는 실제적인 수단이었다. 역대기 저자는 실제로 다윗이 전쟁을 통해 획득한 조공과 전리품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되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⁴⁷

본 문	주제	내 용
대상 18:1-6	전쟁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대상 18:7-11	전리품	금 방패(소바), 놋(디브랏, 군), 금과 은과 놋(하맛), 은금(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대상 19:1-19	전쟁	암몬, 아람
대상 20:1	전쟁	랍바
대상 20:2-3	전리품	보석 있는 왕관(금 한 달란트), 무수한 노략물, 전쟁 포로들
대상 20:4-8	전쟁	블레셋

솔로몬이 성전을 포함한 대규모 건축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바친 무수한 전리품 덕분이었다. 열왕기에는 다윗이 수많은 정복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역대기에는 다윗이 전쟁들을 통해 엄청난 양의 전리품과 조공을 축적하였고 이것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한 재료가 되었다는 점을 여러 장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다.⁴⁸ 만약 다윗이 전쟁에서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이 문제가 되

47 이는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출 32:20-29), 백성들이 바친 예물은 열째 재앙 시에 굽에서 '약탈' 한 것이었다(출 12:29-36). 마치 전쟁을 통해 취한 전리품과 같다.

48 고대 근동의 왕들이 전쟁을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도시의 건축 사업에 필요한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

었다면 그가 자신의 획득한 전리품들을 여호와와 전에 바치는 것도 문제가 되었어야 했다. 왜냐하면 율법서에 의하면 수단이 정당하지 않은 소득(예를 들어, 창기의 소득)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신 23:18 참조). 하지만 다윗이 전쟁을 통해 획득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전혀 문제시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 제의적으로 부정해진 자였다면, 여호와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모습도 문제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역대기 저자의 기록순서에 따르면 다윗의 제사는 인구조사라는 중대한 죄를 범한 뒤에 드린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문제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에 응답까지 해 주셨다. 여기서 그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바친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는데, 이곳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장소였다는 점에서 역대기 저자는 다윗과 성전 사이의 연속성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돋보인다.⁴⁹ 만약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 제의적으로 부정된 자가 되었다면, 그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군다나 응답까지 하셨다는 점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모습일 것이다.⁵⁰

함이었다.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 2세(주전 605-560)의 군사 원정도 바벨론을 비롯한 바빌로니아의 다른 열두 도시의 재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노획물을 얻으려는 욕망에 의해서였다. 빌 아놀드, “바빌로니아인”, 알프레드 허트 외 2인 편집, 『고대 근동 문화』 (신득일/김백석 옮김), (서울: CLC, 2012), 89). 원제는 Alfred J. Hoerth, Gerald L. Mattingly, and Edwin M. Yamauchi, *Peoples of the Old Testament World*, Grand Rapids: Baker, 2012. 느부갓네살의 화려한 건축 업적은 그의 이름이 일일이 새겨진 수 천장의 벽돌에 의해 증거된다. 미에를, 윗글, 402.

49) McCarter, P. K. *I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AB 9; Garden City, N.Y.: Doubleday, 1984), 302. 더 나아가, 역대기 저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족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던 곳이라는 점과 연결하여 이곳이 오래된 종교적인 전통을 가진 장소임을 암시한다(안석일, “역대기의 모형론이 지닌 의미와 기능,” 『구약논집』 18 (2020), 115).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면, 역대기에는 성전터의 위치를 확정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윗은 이 장소에서 여호와로부터 불로 응답을 받고 죄까지 사함 받았으며 그 결과 전염병까지 그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장소는 예배의 장소, 성전으로 적합한 장소임을 보여준 대(이창엽, “다윗의 인구조사, 회개와 개혁(대상 21:1-22:1),” 『영산신학저널』 46 [2018]: 174).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정통성을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에게서도 찾으려고 하는 역대기 저자의 의도는 여호와께서 성전에 대한 설계를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셨음을 언급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솔로몬은 그 설계도를 다윗으로부터 건네 받았다(대상 28:11-19). 고대 근동에서는 성전에 관한 계획과 규모가 신에 의하여 최고 지도자에게 밝혀진다. 예를 들어, 주전 2천년경 라가쉬의 통치자 구데아는 닌기르수 신전을 건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신으로부터 받았다.⁵¹ 또한 신바빌로니아의 초대 왕 나보폴라살도 사마쉬, 아닷, 마르둑의 인도로 바벨론의 주요 성전 경내에 있는 성전탑인 에테메난키의 치수를 얻었으며 그 치수를 보물로 기억했다고 진술했다.⁵²

이러한 모습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앞선 이스라엘 성막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지시하시면서 구체적인 설계와 함께 규격과 재료까지 직접 정해 주셨다(출 25:9, 40; 26:30; 27:8; 민 8:4).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50 다윗이 제의를 행한 모습과 관련하여 주석가들 중에는 이미 다윗성전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스톨쯔(F. Stolz)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다윗은 이미 여부스 사람들의 성소를 찾아내어 그것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본다(프리즈 스톨쯔, 『사무엘상하』 박영옥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371). 원제는 Fritz Stolz, *Das erste und zweite Buch Samuel* (Zürich: TVZ, 1981). 그는 사무엘하 12장 20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와 전”에 들어간 장면에 근거하여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링그렌(H. Ringgren)은 솔로몬의 성전이 신축 건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건물을 확장시킨 것이라는 맥락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는 말 대신에 “솔로몬의 성전개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헬머 링그렌, 『이스라엘 종교사』 김성애 역 [서울: 성 바오로 출판사, 1990], 70). 원제는 Helmer Ringgren, *Israelite Religion* (Philadelphia: Fortress, 1980). 크라우스(H. Kruse)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예루살렘 장소를 모색하고, 법궤를 옮기며, 또 재원을 확보했으나 이집트나 바벨론 식으로 크게 지으려는 야망 때문에 그 준비에 시간이 걸렸고 드디어 그 꿈이 좌절된 것이라고 본다(게라르트 반 그로닝겐, 『구약의 메시아 사상』 유재원 ·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345). 원제는 Gerard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Eugene: Wipf and Stock, 1997). 앤더슨은 이에 대해 다윗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의 다른 신전들을 가리킬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앤더슨, 윗 글, 164.

51 John M. Lundquist, *The Temple: Meeting Place of Heaven and Earth*, 211.

52 윗 글, 211.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출 25:40)고 하시며 그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경우는 매우 달랐다. 성전 건축의 설계를 수여 받은 사람이 성전 건축의 당사자인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인데,⁵³ 이는 이스라엘의 성막이나 고대근동의 신전건축의 경우와는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다윗이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점을 묘사하기 위해서 었을 것이다.⁵⁴

역대기 저자의 다윗에 대한 강조는 그가 솔로몬에게 준 설계도가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성전 복도, 집들, 곳간, 다락, 골방, 속죄소, 성전 뜰, 사면의 모든 방, 성물 곳간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에 따라 각각 섬기는 일에 대한 지침까지도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대상 28:11-13). 앞에서 언급한 성전 찬양대, 문지기, 제사장 등에 관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대상 23-26장 참조). 이어서 다윗은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들에 대한 도안과 필요한 금과 은, 즉 금 기구, 은 기구, 진설병의 금상, 은상, 금 갈고리와 쟁, 금 잔, 은 잔, 금으로 만든 분향등, 금으로 만든 속죄소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한다(대상 28:14-18).⁵⁵ 즉,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솔로몬이 단독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윗에 의해 전달된 것이라는 점을 역대기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⁵⁶ 만약 역대기 저자가 다윗을 전쟁의 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인물로 보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면, 굳이 성전 건축을 다윗과 연결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

53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시작 전(왕상 3:4-15)과 건축이 끝난 후(왕상 9:3-9)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계시를 주었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두 번 모두 꿈을 통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보인다. 고대 근동에서 꿈은 계시를 받는 수단이었다. 아브라함(창 15:1), 사울(삼상 28:6, 15)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54 Roddy Braun, “The Message of Chronicles: Rally Round the Temple,” CTM 42 (1971), 502-514.

55 송병현, 「역대상」(서울: 이엠, 2020), 420.

56 셀만(M. Selman)의 표현을 빌리자면, 역대기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다윗과 솔로몬의 공동 프로젝트”로 이해한다. Martin Selman, *1 Chronicles* (Leicester, England: Inter-Varsity Press, 1994), 214.

이 마땅할 것이다.⁵⁷ 하지만 다윗이 실제로 매우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관한 결격사유를 부여하는 것은 역대기 저자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된다.⁵⁸

2)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정당성 부여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이 실패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보다는 솔로몬의 건축에 신적 정당성과 신적 지지를 더해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이해된다.⁵⁹ ‘왜 다윗이 아니라 혹은 다윗의 다른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이 아니라(대상 3:1-9) 꼭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야 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저자의 의도로 보인다.⁶⁰ 역대기에서 솔로몬은 다윗 이후 유일하게 ‘בַּחֲרָה’(바하르/선택하다)가 사용된 인물이다(대상 28:4; 대하 6:5).⁶¹ 이러한 문맥을 고려하면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보다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사업에 당위성을 부여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보인다. 여기에는 신전은 신에 의해 지상 통치를 위임 받은 왕에 의해서 건립되어야 한다는 고대의 의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⁶²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할 수밖에

57 더 나아가 역대기 저자는 다윗-솔로몬-백성들을 성전 건축에 참여한 자들로 묘사한다. 온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주제이며,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포함한다.

58 스티븐 투엘, 「역대상·하」(배희숙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145-146.

59 같은 원리로 역대기 저자는 사울 왕가의 통치가 다윗에게로 넘어오게 된 경위에 대해 역대상 10장에서 설명했다. 왜 사울이 탈락되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어야 했는지에 대한 신학적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60 김중윤, 「고대 유다에서 읽는 다윗 내러티브」(서울: 성광문화사, 2004), 135

61 Dirksen, 윗글, 54-55.

62 M. D. Dick, “The ‘History of David’s Rise to Power’ and the New-Babylonian Succession Apologies”, B. F. Batto & K. L. Roberts(eds), *David and Zion: Biblical Studies in Honor of J. J. M. Roberts* (Winona Lake: Eisenbrauns, 2004), 3-19.

없었는지에 대해 고대 근동의 문학 기법을 감안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마르-수엔(Amar-Suen)과 나람-신(Naram-Sin)에 대한 내용에서 선임 왕들 중에 한 명이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것은 선임 왕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자신의 업적 및 신들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해 신이 선임 왕의 건축 계획을 거절한 내용을 회고적으로 기록한 것이다.⁶³ 따라서 다윗 때는 아직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니었고, 솔로몬 때에 와서야 반드시 성전이 지어져야 할 시기라고 하며 솔로몬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 역대기 저자의 의도이다. 역대기 저자는 역대상 10장에서 왜 사울의 가문이 아닌 다윗이 왕이 되었어야 했는지에 대해 밝혔듯이, 같은 원리로 역대상 22장과 28장에서도 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는 것이다.⁶⁴

3) 솔로몬 시대를 모세의 예언의 성취시기로 봄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시기를 궁극적으로 성취된 안식의 때로 보여준다. 그리하여 그는 다윗을 전쟁의 사람(מִלְחָמָה אִישׁ /이쉬 밀하모트)으로(대상 28:3) 그리고 솔로몬을 안식의 사람(מְנוּחָה אִישׁ /이쉬 메누하)으로(대상 22:9) 묘사한다. 이는 다윗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를 ‘전쟁’의 이미지, 솔로몬을 ‘안식’의 이미지로 각각의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려는 것이다.⁶⁵ 성전

63 정해웅, “솔로몬 성전과 고대 근동 성전의 비교연구,” (광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82. 반면, 이전 왕들에 비해 자신이 뛰어난 점을 드러내기 위한 비문도 있다. 예를 들어, 페니키아의 킬라무와 의 비문에 의하면 이전 왕이 이루지 못한 일을 자신이 성취하였음을 기록했다(김영진, 윗글 [2005], 59).

64 이러한 정당성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 김종윤은 혹여라도 누군가가 솔로몬 통치 시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간통의 결과로 생겨난 왕조라는 의혹을 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종윤, 윗글, 135.

65 Murray, 윗글, 462. 야벳도 전쟁과 성전 간의 대조는 절대적이라고 본다는 면에서 필자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로 인해 다윗의 도덕적, 제의적 자격을 갖추기 어렵다고 본다 (Japhet, 윗글, 397-98).

은 안식의 집(בֵּית מְנוּחָה/베이트 메누하)인만큼(대상 28:2) 평화의 사람인 솔로몬(שְׁלֹמֹה/솔로모)이 적격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표현은 신명기적 관점의 열왕기서에도 사용되었으며(왕상 8:2), 역대기의 솔로몬과 히람의 대화에서도 안식과 성전이 연결되어 언급되었다(대하 2:3).

정복전쟁이 한창이던 다윗 시대는 ‘아직’ 평화와 안식의 때가 아니었다. 다윗은 정복 활동으로 일생을 보내느라 체계적인 정부조직도 갖추지 못하다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시점에서야 뒤늦게 갖추게 되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계획을 전수하면서 대대적으로 여러 분야(종교, 사회, 군대, 지도자)에서 체계적인 조직을 정비해 나갔다(대상 23-27장): 레위 사람의 역할(23:2-32), 레위 사람과 제사장의 역할 구분(24:1-31), 찬양대(25:1-31), 성전 문지기(26:1-19), 성전 회계(26:20-28), 재판관과 관료들(26:29-32), 군대조직(27:1-15), 지파별 지도자들(27:16-24). 이와 같은 역대기의 구조로 보아 다윗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정복 활동(대상 18-20장)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조직이 정비된(대상 23-27장) 후에야 비로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안정된 시기’가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성전 건축은 주변만 정복했다고 해서 국가의 체계적인 조직도 정비하지 않은 채 선불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주변국들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내부조직에 대한 정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준비를 갖춘 후에, 즉 평화와 안식의 때에 와서야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다윗의 연설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화에 대해 예언했던 것을 상기시킨다.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께서 주변의 대적을 물리치고 안식을 주셔서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다(신 12:10-11).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릴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중앙 성소를 세우실 때이다.⁶⁶ 평화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솔로몬의 때가 비로소 모세가 이야기했던 안식의 시기였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다윗보다 그가 우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상징성 때문으로 보인다. 브라운에 의하면, “평안의 개념과 그리고 그것을 왕조 계승 속에 병합시키는 것을 통하여 솔로몬이 바로 안식의 사람으로서 신이 선택한 성전 건축가였다.”⁶⁷

6. 나가는 말

본 연구에서 필자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를 고찰하면서 먼 저 구약의 관련 본문 분석을 통해 전쟁의 상황에서 피를 흘린 것에 대해 문제 삼기 어려움을 주장하였다. 구약의 성전(聖戰, Holy War) 사상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고 싸우시는 전쟁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실하게 참전하였던 것이다. 만약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것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면, 다윗의 부정적인 개인사도 거침없이 보여주는 신명기적 관점의 역사에서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다윗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역대기에서 두 번이나 언급했다는 점은 저자의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윗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필자가 분석한 신명기적 관점과 역대기적 관점을 비교해보면, 전자는 다윗이 평생에 걸쳐 여호와와의 전쟁을 치르느라 성전을 건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후자는 수많은 전쟁이 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군사, 경제, 정부조직)단계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66 Roddy Braun, “Solomon, The Chosen Temple Builder,” 583.

67 Braun, *윗글* (1986), 226-227; Jacob M. Myers, *1 Chronicl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12; Garden City, N.Y.: Doubleday, 1965), 154. 또한 예루살렘의 뜻 또한 ‘평화’와 관련되어 있다. 아마도 전통적으로 샬림(평화)이라는 신과 연관된 도시였을 것이다. 앤더슨, *윗글*, 170.

두 관점은 공통적으로 ‘다윗은 전쟁수행을 통한 건축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고, 솔로몬은 안식의 때를 맞아 건축을 실행’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두 인물의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두 관점의 설명에 사실상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각각 자신의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안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다윗이 주변의 적들을 하나하나 물리침으로써 실현될 수 있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으로서 성전(聖戰, Holy War)을 통해 ‘피를 많이 흘림’으로써 여호와의 성전(聖殿, Temple)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일생에 걸쳐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감당한 자였다.

참고문헌

- 김영진, 「고대 근동의 역사문헌」 (서울: 한울출판사, 2005).
- 김영진, 「구약성서의 세계」 (서울: 하늘기획, 2009).
- 김이곤, “거룩한 전쟁이념이 구약사상에 끼친 영향”, 「한신논문집」 70 (1990), 5-24.
- 김종윤, 「고대 유다에서 읽는 다윗 내러티브」 (서울: 성광문화사, 2004).
- 송병현, 「여호수아」 (서울: 이앤, 2018).
- 송병현, 「역대상」 (서울: 이앤, 2020).
- 안석일, “역대기의 모형론이 지닌 의미와 기능”, 「구약논집」 18 (2020), 108-33.
- 이은우,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29 (2008), 67-86.
- 이창엽, “다윗의 인구조사, 회개와 개혁(대상 21:1-22:1)”, 「영산신학저널」 46 (2018), 151-179.
- 임태수, 「역대상」 (대한기독교서회100주년기념 1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장일선, “역대기 사가의 신학적 관점”, 「신학사상」 25 (1979), 301-325.
- 황성일, “모압 비문과 아합(오므리) 왕조”, 「광신논단」 20 (2011), 31-51.
- 황성일, “역대기와 성전건축가 솔로몬”, 「광신논단」 18 (2009), 29-50.

- 그로닝겐, 게라르드 반, 「구약의 메시아 사상」 (유재원/류호준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원제 Van Groningen, Gerard, *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Eugene: Wipf and Stock, 1997).
- 노트, 마틴, 「이스라엘의 역사」 (박문재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원제 Noth, Martin, *The History of Israel* (London: SCM Press, 1996).
- 드보, 롤랑, 「구약시대의 생활풍속」 (이양구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원제 Vaux, Roland de, *Das Alte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 (Germany: Freiburg, 1964).
- 링그랜, 헬머, 「이스라엘 종교사」 (김성애 옮김),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90). 원제 Ringgren, Helmer, *Israelite Religion* (Philadelphia: Fortress, 1980).
- 미에롭, 마르크 반 드, 「고대 근동 역사」 (김구원 옮김), (서울: CLC, 2010). 원제 Mieroop, Marc van de, *A Hi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Malden: Blackwell, 2004).
- 스톨쯔, 프리쯔, 「사무엘상 · 하」 (박영옥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원제 Stolz, Fritz, *Das erste und zweite Buch Samuel* (Zürich: TVZ, 1981).
- 아놀드, 빌, “바빌로니아인”, 알프레드 허트 외 2인 편집, 「고대 근동 문화」 (신득일/김백석 옮김), (서울: CLC, 2012). 원제 Hoerth, Alfred J., Gerald L. Mattingly, and Edwin M. Yamauchi. *Peoples of the Old Testament World* (Grand Rapids: Baker, 2012).
- 앤더슨, A. A., 「사무엘하」 (권대영 옮김), (WBC 11; 서울: 솔로몬, 2001). 원제 Anderson, A. A., *2 Samuel* (WBC 11; Dallas: Word Books, 1989).
- 윌튼, 존 & J. 하비 윌튼, 「토라의 잃어버린 세계」 (안영미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원제 Walton, John H., and J. Harvey Walton. *The Lost World of the Torah: Law as Covenant and Wisdom in Ancient Context*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19).
- 윌튼, 존, “성전”, 조나단 그리어 외 편집, 「고대 근동 문화와 구약의 배경: 구약의 숨겨진 이야기」 (김은호/우택주 옮김), (서울: CLC, 2020). 원제 Greer, Jonathan S., John W. Hilber, and John H. Walton, *Behind the Scenes of the Old Testament: Cultural,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8).

- 투엘, 스티븐, 「역대상·하」 (배희숙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원제 Tuell, Steven S., *First and Second Chronicl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1).
- Braun, Roddy L., *1 Chronicles* (WBC 14; Waco: Word Books, 1986).
- Braun, Roddy L., “Solomon, The Chosen Temple Builder: The Significance of 1 Chronicles 22, 28, and 29 for the Theology of Chronicl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5/4 (1976), 581-590.
- Braun, Roddy L., “The Message of Chronicles: Rally ’Round the Temple”, *Concordia Theological Monthly* 42 (1971), 502-514.
- DeVries, Simon, *1 Kings* (WBC 12;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3).
- Dick, M. D., “The ‘History of David’s Rise to Power’ and the New-Babylonian Succession Apologies”, B. F. Batto & K. L. Roberts(eds.), *David and Zion: Biblical Studies in Honor of J. J. M. Roberts* (Winona Lake: Eisenbrauns, 2004).
- Dirksen, Piet B., “Why Was David Disqualified as Temple Builder? The Meaning of 1 Chronicles 22.8”, *Journal of Study of Old Testament* 70 (1996), 51-56.
- Ishida, Tomoo, “Solomon”, Freedman, David Noel, Gary A. Herion, David F. Graf, John David Pleins, and Astrid Billes Beck(eds), *Anchor Bible Dictionary* 6 (New York: Doubleday, 1992).
- Japhet, Sara, *1 & 2 Chronicles: A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1993).
- Kaiser, Walter C., Peter H. Davids, F. F. Bruce, and Manfred T. Brauch, *Hard Sayings of the Bible*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10).
- Keil, C. F. and F.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3 (Grand Rapids: Eerdmans, 1982).
- Kelly, Brian E., “David’s Disqualification in 1 Chronicles 22.8: A Response to Piet B. Dirksen”, *Journal of Studies of Old Testament* 80 (1998), 53-61.
- Knoppers, Gary N., *1 Chronicl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C; New York: Doubleday, 2004).
- Lemke, W. E., “The Synoptic Problem in the Chronicler’s History,” *Harvard Theo-*

www.kci.go.kr

- logical Review* 58.4 (1965), 349-363.
- Longman, Tremper and Daniel G. Reid, *God Is a Warrior* (Grand Rapids: Zondervan, 2010).
- McCarter, P. K., *I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ABC 9; Garden City: Doubleday, 1984).
- Miller, Patrick D. Jr, *The Divine Warrior in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Murray, Donald F., “Under YHWH’s Veto: David as Shedder of Blood in Chronicles”, *Biblical Studies on the Web* 82 (2001), 457-475.
- Myers, Jacob M., *1 Chronicl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ABC 12; Garden City: Doubleday, 1965).
- Selman, Martin J., *1 Chronicles* (Leicester, England: Inter-Varsity Press, 1994).
- Wilcock, Michael, *The Message of Chronicles: One Church, One Faith, One Lord* (Downers Grove: IVP Academic, 1987).
- Williamson, H. G. M., *I & II Chronicles* (Eugene: Wipf & Stock, 2010).

검색어

피를 흘리다

전쟁의 사람

성전(聖戰)

신명기적 관점

역대기적 관점

The Reasons Why David Could Not Build a Temple of Yahweh

Kyung-Ji H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resent paper researches the reasons why David could not build a temple of Yahweh. Most scholars have argued that it was because he poured too much blood in battles (e.g., his campaigns in 1 Chron 22:8 and 28:3). However, there is a scholarly debate about whether the Chronicler, who typically favors David, really supported this opposition. The present researcher maintains that the Chronicler uses the expression ‘shedding much blood’ to depict David as ‘a man of war’ without pointing out his moral or ethical issues.

To prove my argument, I will investigate passages having the expression ‘shedding blood’ and then discuss the concepts and thoughts of war (also known as ‘Holy War’) in the Old Testament. Then, I will introduce related pas-

sages to figure out some features of the two histories' messages (Deuteronomistic perspective vs. Chronicler's perspective).

According to my research, there is no occurrence of the expression 'shedding blood' in the context of battle outside these two Chronicles passages. Yet, with regard to battles in the Old Testament, the wars are Holy Wars, which were initiated and managed exclusively by Yahweh, not by human beings. In this view, David participated in Yahweh's battles. It is noteworthy that even the Deuteronomistic perspective, which mentions David's negative aspects without hesitation, does not deal with his failure of the temple building plan in a negative way. Rather, it was impossible for him to build a temple because he was preoccupied with Yahweh's wars. Chronicles portrays David as a 'man of war' in the actions of 'shedding much blood.' This expression thus compliments David who was faithful to Yahweh by participating the Holy War throughout his entire life.

Keywords

Shed blood

Man of war

Holy War

Deuteronomistic perspective

Chronicler's perspective

- 투고일: 2022년 7월 23일
- 심사일: 2022년 8월 10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8월 24일

www.kci.go.kr